

“12일 총궐기 서울 가자”…성난 민심 대거 상경 예고

국정농단 분노 확산…학생·직장인 등 1만명 참여할 듯 “지금 징계가 문제냐” 교사·공무원들까지 서울행 채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돌아선 민심이 지난 주말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촛불을 들었다. 지난 10월29일 서울에 운집한 2만여개의 촛불은 지난 5일 30만명(전국)으로 늘어나는 등 들불처럼 번졌다. 오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 및 3차 촛불집회에는 더 많은 국민이 운집할 것으로 보인다.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측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나이와 계층을 떠나 최대 100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학생, 시민사회단체, 농민, 노동자 등 모두 1만여명의 시민이 서울로 상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국에서 12일 민중총궐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들었다.

교사들도 가족 단위로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점차 참가 규모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600~700여명이 민중총궐기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정여고 교사 김우람(33)씨는 “내신과 수능 준비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한 학생들이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는 등 본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하고 글을 쓰는 모습을 보고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며 “교육 공무원의 입장에서 부담도 있지만 12일 만큼은 교사 김우람이 아닌 자연인으로 민중총궐기에 참가해 함께 행동하고 그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 불안한 신분에 시달려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서울에 운집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김혜정(여·41)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고 나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우리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국정농단을 한 박 대통령은 물론 비정규직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정권과 새누리당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주말 열린 광주지역 촛불시위에 가족들과 함께 참여했던 직장인 문정현(48)씨는 “국가 안보와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간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목적으로 서울로 향한다”고 민중총궐기 참가의 뜻을 전했다.

‘11·4 박 대통령의 담화’에 분노하며 9일 5·18민주광장에서 ‘뺑투더 11월4일’ 행사를 연 광주지역 청년들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청년단체 ‘동네준인’ 김태진(33) 대표는 “행동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조그마한 행동이라도 하기 위해 서울로 향하려 한다”며 “가만히 있으라는 기득권층의 말을 더 이상 듣고만 있지 않으려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조선대 학생 조영춘씨는 “12일 우리들의 참여가 궁극적으로 정권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경우 현 체제로 유지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본다”며 “지금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얻을 수 없고 발전도 없다는 생각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진보연대 황성호(45) 사무국장은

“박 대통령을 하야 시켜 혼란스러운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서울로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무원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폐지를 요구해온 공무원 사회도 서울로 향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동구지부 최종덕(44) 지부장은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정부의 성과 퇴출제와 노동 개악을 막기 위한 것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비정상적인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 결집된 힘을 보여줄 계획”이라며 “이미 호남의 지지율이 0%이고 전 국민의 90% 이상이 박 대통령 퇴진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박대통령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발족

광주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본부가 발족하는 등 지역에서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9일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이하 광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광주운동본부는 이날 광주YMCA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이 국회 의장을 만나 국회추천총리를 통한 내각구성을 제안했지만 이는 교육지책”이라며 “지금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즉각 퇴진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이 전례 없이 빠르게 대한민국사과를 했지만 이제 거짓말로 드러나

역풍을 맞았고, 급기가 검찰수사 수용사와 성명까지 발표했다지만 지난 5일 광화문에 20만명, 전국에 30만명이 운집해 사과대시 하야 구호를 외쳤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자연인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노강구 회장 등 소속 변호사 220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히 호가호위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사유함으로써 헌정질서 파괴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가 국민을 격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격정해야 하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비탄에

광주 변호사 220명도 퇴진 촉구
광주·전남총학생회 11일 시국선언

빠진 오늘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대통령 스스로 진상규명을 위한 양심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도왔다면 헌법 위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고, 내각과 청와대의 공무원이 대통령 몰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전남총학생회협의회는 11일 오후 4시 광주대에서 시국선언을 한 뒤 동구 5·18민주광장까지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선언에는 조선대·동신대·호남대·광주대·광주여대·송원대·목포대·조광대 총학생회가 참여한다. /김경민기자 kki@r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가 9일 오후 광주 금남로 YMCA에서 결성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통령 퇴진 운동에 돌입했다. 운동본부는 오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민중 총궐기대회에 광주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순실이 콩밥정식’·‘최순실 맥주’…국정농단 풍자 붐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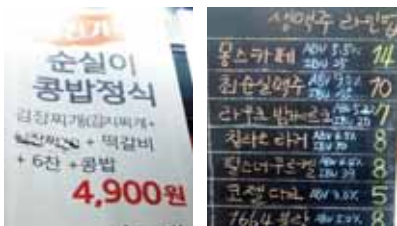
광주 식당가 잇단 메뉴 등장

정국 조립은 소설·시도 인기

‘최순실 게이트’가 풍자로 이어지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을 풍자한 음식부터 소설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한 고깃집에는 ‘순실이 콩밥정식’이 등장했다. 이 식당은 이달 초 현수막을 내걸고 이 메뉴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메뉴는 김장찌개(김치찌개+된장찌개), 떡갈비, 반찬 6가지 그리고 콩밥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식단 구성에 비해 가격은 단돈 4900원으로 착하기까지 하다. 현수막에는 ‘순실이 콩밥 먹을 때까지 주욱!’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동구 동명동의 한 맥주가게에서는 지난 6일부터 ‘최순실 맥주’가 판매되고



있다. ‘최순실 맥주’는 미국의 맥주 회사가 러시아의 실존 인물인 ‘고레고리 라스푸틴’의 이름을 따 만든 ‘올드 라스푸틴’이라는 맥주의 이름만 바꾼 것이다. 이 맥주가 ‘최순실 맥주’로 개명된 것은 지난달 뉴욕타임스가 최순실을 라스푸틴에 비유하면서부터다. 빈종 출신 라스푸틴은 수도사로 활동하며 신홍종교를 퍼트렸고, 차르 니콜라이 2세와 황후 알렉산드라를 조종해 막후 실세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후 이어진 라스푸틴의 전횡은 결국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가

몰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이 맥주를 판매하는 ‘티미 트라이앵글’의 나은수(32) 사장은 “올드 라스푸틴은 서울과 부산에서도 유행하고 있는데 이름을 바꾸고 나서 찾는 사람도 늘었다”며 “이 맥주를 마시면서 현 국정농단 사태를 이야기하는 젊은층도 많다”고 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나오는 시력점검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0.1’이 표기된 줄에는 ‘최순실’이라는 글자와 무당벌레가, ‘0.2’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닭이, ‘0.3’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뱀이 함께 올라와 있다.

이에 앞서 SNS에서는 현 정국을 소설과 시 형식으로 풍자한 ‘공주전’과 ‘박공주헌정시(朴公主獻壽詩)’가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김경민기자 kki@r

이번엔 무안에서 ‘농장 노예’

전남경찰, 지적장애인 40년간 착취한 70대 입건

80대 지적장애인을 40년간 중노동 시키며 임금 한푼 지급하지 않은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80대 지적장애인에게 40년간 농사일을 시키며 착취한 혐의(준사기·감금·장애인 학대·횡령 등)로 최모(7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는 1976년부터 지난 9월12일까지 지적장애 3급인 A(80)씨를 데려와 진도군에 있는 2만1000㎡ 규모의 자신의 논·밭과 김 가공사실 등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또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수당 임금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며 2400여만원을 무단 인출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노동부가 1989년 이후 정한 최저임금 기준을 토대로 1억2500만원 이상의 임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고가 없는 A씨를 가족처럼 돌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농사용품과 먼지가 쌓인 창고 방에 가두고 생활하며 일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9월 전남지역 장애인인권센터 등과 함께 피의자를 장애인보호시설로 격리 조치해 오랜 노동으로 쇠약해진 건강 회복과 백내장 수술, 치과 치료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가족을 찾기 위해 수소문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모텔서 위폐 찍어낸 2명 쇠고랑



○~20대 남성 2명이 모텔에 걸려 복합기를 틀어놓고 합숙까지 하면서 위조지폐를 마구 찍어내 사용하다 결국 쇠고랑 신세.

○~8일 해남경찰에 따르면 박모(24)씨 등 2명은 지난달 31일 광주시 서구의 한 마트에서 5만원짜리 위폐를 내고 담배 한 갑을 산 뒤 4만5000원을 거슬러 받는 등 지난 3월까지 광주와 해남, 강진, 군산지역의 동네 마트 등을 상대로 5만원권 위폐 25장을 사용한 혐의.

○박씨 일당은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로 위폐를 찍어내고 경찰 추적마저 따돌리려고 대포차를 구해 그 안에 걸려 복합기, 인쇄용지, 자, 절단용 공구 등을 잔뜩 싣고 다녔지만, 지난 1일 피해 신고를 받고 공조수사에 나선 해남경찰과 군산경찰에 일주일 만에 걸렸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